



새로운 시각으로 쓴 록의 사회사

《록,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펴낸 임진모씨

것들입니다. 음반 하나 록스타 한명을 따로 보지 않고 긴 ‘록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록을 말하면서 가장 의미를 두는 부분은 ‘록이 세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예술’이라는 점이다. 간혹 저속하다는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결국 ‘세상의 반을 대변하는 문화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록의 매니아들뿐 아니라 음악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록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전이시켜준 역사인식으로 음악을 논하고 싶다고 밝히는 임진모씨는 한 사회에서 이른바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갖는 의미와 기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 시대의 음악평론가이다.

—허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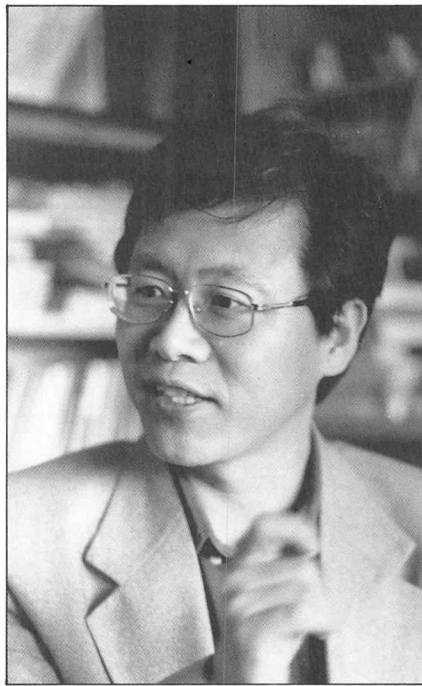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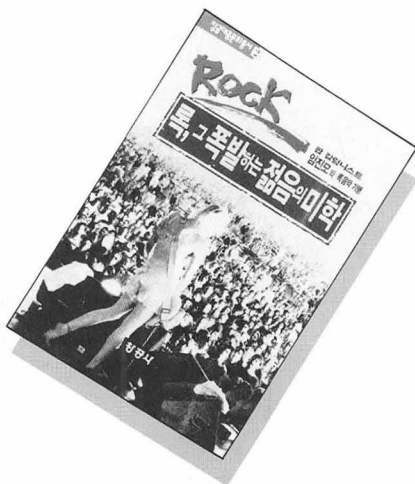
“록음악은 하위 계층민들의 분노와 저항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장르입니다. 록의 가치는 ‘승리한 자들의 합창’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아우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 록음악과 관련된 담론들과 록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인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한 《록,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창공사)을 출간한 팜 칼럼니스트 임진모씨(36)는 시대의 모순과 하위문화의 갈등을 표출한 거대한 음악장르인 록이 점점 화려하게 치장되는 요즈음의 현상을 ‘록에 대한 허상’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이번 책은 록스타들의 왜곡된 모습을 바로잡는 과정을 통해 록이 사회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있다.

임진모씨의 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남다른 데가 있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는 오로지 음악에 대한 애정 때문에 84년 신문사에 입사했다. 그때만 해도 해외 음반이나 해외 저작물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드물었고, 신문사에 들어가는 길만이 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

9년 동안의 신문기자 생활을 청산한 그는 본격적으로 팜 칼럼니스트 활동을 시작한다. ‘팜 칼럼니스트’라는 생소한 직업이 그의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익숙해질 무렵 임씨는 《팜 리얼리즘 팜 아티스트》(대륙, 1993)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번에 나온 책은 바로 그 책의 후속편인 셈.

“이번 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록에 관한 개론이나 록스타들에 관한 상식을 ‘다시 보고, 비틀어보자’는 취지 아래 쓴



리얼리즘의 옹호와 사심없는 비평

《리얼리즘의 옹호》
펴낸 윤지관 교수

생각합니다.”

저자를 싸움꾼쯤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평가에 대한 담담한 답변이다. 실제로도 투사의 이미지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학자의 풍모가 더 가깝게 와닿는다. 여린 듯 강강한 저자의 성품은 문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고유한 아우라(aura)를 물씬 풍긴다.

“문제를 얻는 것이 비평의 자질이 된다는 생각합니다. 비평언어는 살아 있어야 하고,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체론은 비평관에도 이어져 인문전통 및 삶의 질과 가치라는 비평원칙을 지키면서 비평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슈 아놀드가 말한 ‘사심없는 비평’이 자신에게는 하나의 화두라고 강조한다.

《근대사회의 교양과 비평》의 〈책머리에〉에 ‘삶과 학문의 동반자인 학형’으로 표현했던 김영희(39, 한국과학기술원 교양과정부 교수)씨가 그의 부인이다.

이번 평론집에서는 이론비평의 비중이 컸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작품 읽기에 몰두해서 더욱 폭넓은 작품 논의를 펴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성일 기자

“90년대 리얼리즘 논쟁의 성과는 진보적 이론과 작품을 결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촉발된 논쟁을 통해서 리얼리즘 논의의 진전이 분명히 있었고,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리얼리즘의 옹호자’ 윤지관(42,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가 두번째 평론집 《리얼리즘의 옹호》(실천문화사)를 펴냈다. 평론집으로는 여섯해만에, 지난해 박사논문을 담은 《근대사회의 교양과 비평(창작과비평사)》을 펴낸 지 육개월 만에 또 한편의 저서를 갖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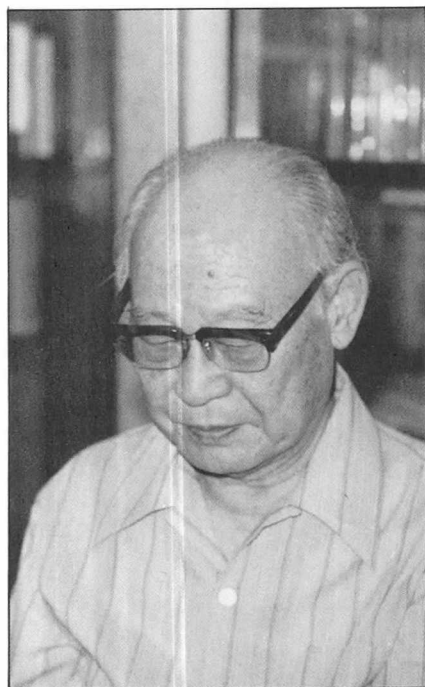
논쟁의 발안자 가운데 한사람인 저자의 개인 결산이기도 한 이 책의 1부에는 90년대 한국문학의 현실태를 예리한 축수로 포착해 낸 시론(時論)들을 모아 놓았다. 2부에는 논쟁의 서문격인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를 비롯한 저자의 리얼리즘론을 수록하였다.

실제비평의 묶음인 3부와 4부는 김남주, 이청준, 차주옥 등에 대한 작가·작품론과 젊은 작가들의 작품 분석을 실었으며, 5부에서는 테리 이글턴과 에드워드 사이드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은 시론 형식의 평문을 담은 1부이다. 책에서 차지하는 분량상의 비중은 물론이려니와, 생산된 작품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화두》에 대한 곡진한 비판과 이른바 〈상상〉그룹과 별인 논전의 일부를 다시 읽을 수 있다.

“저 자신은 암전한 사람이라고





역사는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역사철학》 《역사인식론》
펴낸 한명수 교수

키에르케고르, 헤겔, 마르크스 변증법 3부작을 구상하고 있다는 한교수는 일흔아홉의 나이에도 전혀 열정을 잃지 않고 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동맥이 조금 말썽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집안에 마련해 둔 런닝 머신으로 건강을 돌보며 삶의 일부 일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슬하의 두 딸과 두 아들이 모두 가정과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어 나도 아주 헛산 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끝내놓은 직후라 좀 여가가 나서 모처럼 아내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을 맺는 한교수의 얼굴에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온화한 웃음이 떠올라 있다.

—이현주 기자

학교의 일을 후배들에게 물려 주고 두문불출 집필에만 매달려온 한명수 교수(79, 경북대 명예교수)가 최근 《역사인식론》(이문출판사)과 《역사철학》의 개정판을 동시에 출간했다.

“94년에 펴냈던 《역사철학》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것을 역사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책입니다. 역사의 인식과 기술 방법론 등을 다룬 《역사인식론》은 그 속편격이지요.”

한교수가 《역사철학》을 집필할 때만 하더라도 역사를 자연과학처럼 하나의 객관적 진실로 이해하려고 하는 근대적 합리주의가 역사철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단지 ‘수락된 진술’일 뿐 역사가의 사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실도 ‘역사’가 되지 못한다. 한교수는 그 예로 박정희 시대의 두 목격자와 군사법정 기록을 들어 관점에 따라 사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한다. 한교수는 걸핏하면 위정자들이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하지만 역사는 절대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한다. 역사학이 ‘사실을 위한 사실의 규명’이라는 말은 허상일 뿐이다.

이런 한교수의 생각은 노작 《역사인식론》에서 경험론적 역사이론으로부터 신칸트학과, 관념론적 역사이론으로 이어오는 역사인식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계승하면서 사관과 사가에 대한 고민으로 집약되었다.

《역사인식론》의 부제를 ‘무엇을 위한 사가인가’로 한 것은 그간 한교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책이 나온 뒤 요즘은 조금 쉬면서



한반도의 옛날과 대화하는 즐거움

《고고학이야기》
펴낸 이선복 교수

답답하게 한다.

“대학 3학년때, 불문서적 유포 혐의로 수배를 받아 학교에 들락거리기가 편치 않아 발굴현장에 끼어들었지요. 진논개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는데 2천5백년 전의 돌널무덤 속에 긴 돌칼을 옆에 차고 누워 있던 ‘영감님 한분’을 만났습니다.”

전율이 일 만큼 강렬한 느낌을 받았던 그 만남 이후로 이교수는 전공을 고고학으로 결정했다. 이교수는 이미 고등학교 때 《황토대지의 아이들》 《황금가지》 등을 읽고 인류의 옛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왔다.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재미와 까마득한 옛날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매력은 이교수를 고고학에 붙들어 맨다.

“발굴현장에서의 힘겨운 ‘노동’ 끝에 마시는 술맛과 수천년전의 유적과 같은 땅에 드러누워 바라보는 밤하늘의 아름다움도 고고학 연구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낭만입니다.”

—박남정 기자

이선복(40,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고고학이야기》(가서원)는 고고학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디아나 존스’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 십상인 독자들을 고고학의 생생한 현장으로 이끄는 책이다.

이교수는 우선 입으로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문화재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발한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립중앙박물관을 임시로 이전한 것이나 경주에 고속전철 관통시키기로 한 것 같은 최근의 결정들에 이교수는 ‘격분’한다.

이교수는 이에 대해 “무지한 정부의 연출과 약삭빠른 언론의 외면과 우매한 백성의 환호 속에 벌어지고 있는 엉터리 짓거리”라고 잘라 말한다.

도대체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이교수가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다른 한 편의 고고학 이야기다.

이름만 교수지 ‘노가다 심장’이나 다를 바 없다는 발굴현장에서의 체험이나 유적발굴에 얽힌 에피소드는 흥미를 더한다. 이밖에도 이교수는 기존의 고고학적 해석에 대한 학문적 재검토를 통해 구석기로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기 쉽게 펼쳐보인다. 이교수는 민족의 기원이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 마치 고고학의 과제인 양 착각하는 오류를 지적한다. 30년의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아직 과학적인 학문방법론보다는 감상주의적인 경향이 지배적인 우리 고고학계의 현실이 그를

